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금융 역량과 금융교육*

한진수** (경인교육대학교)

국문요약

금융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금융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금융 역량(금융 지식, 금융 기능, 금융 태도, 금융 행위)을 지니게 함으로써, 더 나은 금융 웰빙 수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금융 역량의 향상이 더 높은 수준의 금융 웰빙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금융 역량의 하부 영역이 각각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실증 연구가 미흡하다. 본 연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조사한 2020년 자료를 이용해 성인의 금융 역량이 금융 웰빙에 미치는 영향과 크기를 추정한다. 이 연구가 정의한 금융 웰빙 지수는 10~50 사이의 값으로 분포하는데,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웰빙 점수는 30.33으로서 보통 수준이다. 금융 웰빙의 성별 차이나 연령별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기혼자와 서울 거주자의 금융 웰빙 수준이 다른 집단보다 높다. 금융 지식과 금융 기능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지만, 여자의 금융 태도가 남자보다 바람직하다. 금융 행위에서는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금융 기능, 금융 태도, 금융 행위는 금융 웰빙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반면에 금융 지식은 약식 지수로 측정한 금융 웰빙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금융 지식 점수가 높고, 금융 태도가 바람직한 사람일수록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외에 소득이 많은 사람, 주택 보유자, 소비 및 저축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성인, 긍정적 사고를 지니고, 자기가 세운 목표 달성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금융 웰빙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나 자녀의 수는 금융 웰빙에 부정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금융 지식을 학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금융교육만으로는 금융 웰빙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 기능, 태도, 행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천적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제어] 금융 웰빙, 금융 역량, 금융교육, 로지스틱

I. 서론

금융교육의 목표는 개인이 단순히 금융 관련 사실들을 학습하고 그 금융 지식에 기초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금융교육은 금융 역량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금융 웰빙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17b, p. 13).

금융교육은 개인의 금융 역량 계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 경제 주체의 재무 성과(outcome)를

* 이 연구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도움말을 주신 세 분의 심사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소중한 자료를 기꺼이 제공해주셔서 금융 웰빙 연구를 가능하게 해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도 고마움을 전한다.

** 한진수,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jshahn@ginue.ac.kr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한진수, 2019). 금융 성과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가능하지만, 최근 금융 웰빙(well-being) 또는 금융 웰니스(wellness)로 의견이 수렴하고 있다.

금융 웰빙의 정의는 다양하다(Brüggen et al., 2017; Kempson et al., 2017; Sorgente & Lanz, 2017). 이를테면 미국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연방정부 기관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17a)는 개인이 현재 및 미래의 재무 관련 필요를 감당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금융 생활에 대비하며 삶의 즐거움을 누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태, Brüggen et al.(2017)은 현재와 미래에 희망하는 생활 수준과 재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다양한 정의를 종합하면, 개인이 현재 및 미래 생활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비 돈을 확보함으로써 돈에 대한 걱정을 떨쳐내고 재무 안정감을 느끼는 상태가 금융 웰빙이라 하겠다.

금융 웰빙 수준이 낮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제 주체는 금융 생활에서 악순환에 처한다. 일상생활의 각종 필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득과 재산으로 인해 부채, 신용 등 각종 재무 역경을 경험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로 육체적 건강마저 나빠진다. 열악한 정신적·육체적 건강 상태는 노동 생산성과 소득 창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는 다시 생활의 기본적 필요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의 충족을 어렵게 만들며, 자신과 가족의 생계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이런 점에서 개인의 금융 웰빙은 개인 문제에서 그치지 않으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경향이 있다. 주요 선진국이 국민의 금융 웰빙 향상을 최우선의 과제 가운데 하나로 간주하고(Brüggen et al., 2017), 금융교육 강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개인의 금융 웰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 20%를 웃돌던 가계 저축률이 1997년 경제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6.9%(2015~2019년 5년 평균치)로 떨어졌다. 개인 저축률의 하락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새 경제 충격(예를 들어 코로나 19)을 흡수하거나 자신의 노후 생활에 대비하는 일을 어렵게 만든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 초반에 머무르는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가 아직 복지 국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인뿐 아니라 국가가 금융 웰빙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주장에 힘을 더한다.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 웰빙 관련 연구는 초기 단계이며, 금융 웰빙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김민정 외(2021)를 제외하면 성인의 금융 웰빙을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웰빙 수준을 파악하고 금융 역량이 금융 웰빙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금융 역량과 금융 웰빙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효과 제고와 방향 설정 및 금융 웰빙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된다.

II. 금융 웰빙의 개념 구조

금융 웰빙은 금융 경제학, 재무 상담학, 소비자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분야에 따라 시각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금융교육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금융 웰빙의 개념 구조를 [그림 1]처럼 나타낼 수 있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데는 적절한 개입(intervention)이 효과적이다. 개입이란 금융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접 방향을 지시하고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동기와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적절한 개입의 대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에 금융교육이나 금융 자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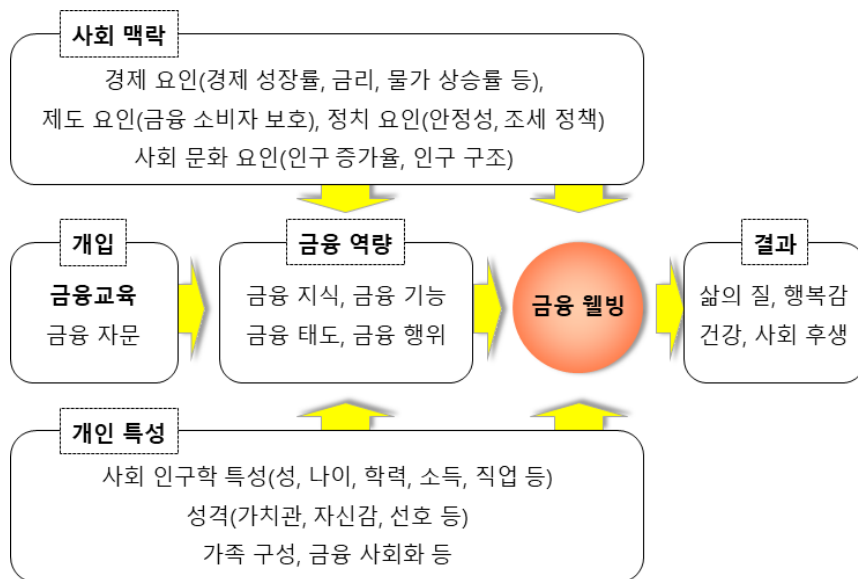
금융교육은 사람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식과 관련 기능을 학습시키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어울리는 태도를 지니게 하며 각자의 상황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Joo, 2008; Lusardi, 2012). 예를 들면 Lusardi & Mitchell(2005)은 금융 원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은퇴를 대비한 계획을 철저히 하고 있음을 발견했으며, Mende & van Doorn(2015)은 금융 이해력이 금융 행위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금융 웰빙의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했다. “금융 소비자와 투자자가 정보, 교육, 객관적 조언을 통해 금융 상품, 금융 개념, 금융 위험을 더 잘 이해하며, 금융 위험과 기회를 더 많이 인지하고, 합리적 선택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인지하고, 자신의 금융 웰빙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능과 자신감을 개발하는 과정”이 금융교육이라고 정의한 OECD(2005)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금융교육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의 금융 의사결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다는 점에서 금융 자문이나 상담의 역할도 중요하다(Gerrans, et al., 2014). 이 외에 행동 경제학의 영향을 받은 너지(nudge)나 틀 짜기 (framing)가 개인의 의사결정에 부드럽게 개입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는 연구도 있다(Saez, 2009; Ikümen & Cheema, 2011). 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이나 저축 한도의 상향 조정 등이 개인의 저축 동기를 자극하기도 한다(Thaler & Benartzi, 2004). 이처럼 적절한 방법을 통한 개입은 확실히 개인의 금융 웰빙 향상에 기여한다.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개인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개인 특성에는 사회 인구학 특성, 개인 성격, 금융 관행, 가족 특성 등 수많은 요인이 잠재해있다. 개인 특성 요인은 금융 웰빙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금융교육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사회 인구학 특성으로는 제일 먼저 성을 생각할 수 있다. 남자보다 여자에게 위험 기피적인 특성이 있으며(Finucane, et al., 2000; Weber et al., 2002), 금융 지식수준에서도 성별 차이가 발견된다(Lusardi & Mitchell, 2011; Atkinson & Messy, 2012). 같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더라도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에 대한 여자의 자신감이 남자보다 떨어진다는 보고도 있다(Bucher-Koenen & Lusardi, 2011). 이처럼 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외에 가구 소득, 주택 보유 상태, 거주지, 주거비 등도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 요인이다.

개인 성격도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성향,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실천력, 자기 확신이나 긍정적 사고, 시간 선호, 충동구매 성향 같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가족의 특성이나 자녀 수 등의 가족 요인도 금융 웰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 외에도 금융 사회화, 생애 주기에 따르는 중요한 사건(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도 개인의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Sorgente & Lanz, 2017). 심지어 부모의 사망도 금융 웰빙에 영향을 주는데, 만약 유산이나 빚이냐에 따라 금융 웰빙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사회 맥락 요인도 있다(Salignac et al., 2020). 경제 요인(경제 성장률, 금리, 물가 상승률 등), 제도 요인(금융 소비자 보호 제도와 보호 노력 등), 정치 요인(정치 안정, 조세 정책 등), 사회 문화 요인(문화, 인구 구조, 인구 증가율, 소득과 부의 분배 상태 등), 시장 요인(금융회사와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 가능성, 금융 서비스 제공 편의성, 자문이나 상담 접근 용이성 등) 등 다양한 환경 요소가 사회 맥락 속에 포함된다. 심지어 디지털 수준이나 모바일 솔루션 같은 기술 요인도 사회 맥락의 일부이다.



[그림 1] 금융 웰빙의 개념 구조

Ⅲ. 자료와 변수

1. 조사대상자 특성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웰빙을 측정하고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이 2020년에 조사한 자료를 이용한다. 이 재단은 펀드투자자를 대상으로 매년 금융 거래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금융 웰빙과 관련된 다수 항목을 포함했다. 온라인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상자는 2,500명의 성인(만 25~64세)이며, 이들의 인구 경제학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자와 여자가 사실상 동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55~64세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조사대상자의 3분의 2 정도가 기혼자이며, 대부분은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졸업한 학력 보유자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체의 38.3%이며, 정규직 취업자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대상자의 24.7%는 비정규직, 기간제, 임시직, 일용직 등 취업자이고, 나머지는 자영업자(8.0%)와 부동산·금융·연금 소득자(1.7%)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5.3%, 1,000만 원 이상인 사람이 5.1%이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구성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성	남자	1,249(50.00)	거주지	서울	958(38.3)
	여자	1,251(50.00)		서울 외	1,542(61.7)
나이	25~34세	560(22.4)	근로 형태	정규직	1,642(65.7)
	35~44세	706(28.2)		비정규직 기간제 등	617(24.7)
	45~54세	736(29.4)		자영업자	199(8.0)
	55~64세	498(19.9)		부동산·금융 소득자	42(1.7)
결혼 상태	미혼	773(30.9)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	133(5.3)
	기혼	1,646(65.8)		200~299만 원	226(9.0)
	이혼 또는 사별	81(3.2)		300~399만 원	363(14.5)
학력	고등학교 미만	10(4)		400~499만 원	414(16.6)
	고등학교	332(13.3)		500~699만 원	703(28.1)
	대학 졸업	1,869(74.8)		700~999만 원	534(21.4)
	대학원 이상	289(11.6)		1,000만 원 이상	127(5.1)

2. 금융 웰빙

1) 측정

자국민의 금융 웰빙 수준을 측정하는 시도는 비슷한 시기에 여러 선진국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에서는 CFPB가 금융 웰빙 척도를 개발했으며(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17a), 노르웨이(Kempson et al, 2017), 호주(Muir et al., 2017)를 이어, 영국(Money Advice Service, 2018), 캐나다(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2019)에서도 금융 웰빙을 측정하는 연구가 속속 진행되었다. OECD(2020)도 국가별 금융 웰빙 수준을 측정·비교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금융 웰빙 점수는 10.7점(20점 만점)으로 전체 평균(9.5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측정 방법과 척도를 구성하는 항목에 약간의 차이가 드러나지만, 이들 선행 연구는

대체로 돈에 대한 걱정, 돈 부족 정도, 예상하지 못한 비용에 대한 대처 능력, 미래에 대한 대비 상태 등을 공통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조사에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여러 나라의 측정 지표 가운데 대표적이며 널리 인용되고 있는 미국 CFPB의 척도를 채택해 한국 성인의 금융 웰빙을 측정했다.

이 금융 웰빙 척도는 <표 2>처럼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을 1~5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했다. 이 가운데 역코딩이 필요한 항목이 6개이다. 우리나라 조사 결과를 가지고 크론바흐 알파로 CFPB 금융 웰빙 척도의 신뢰도를 측정하면 .860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웰빙을 측정하는 데 매우 타당한 척도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성인은 공과금이나 신용카드 청구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는 일에서 자신의 재무 상황을 가장 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평균 4.11). 연체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각종 청구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재무 상황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재정 상황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항목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을 보인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재무 상황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등 삶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평균 2.61). 경조사, 생일, 명절로 인해 커다란 재정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점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금융 웰빙 척도의 항목별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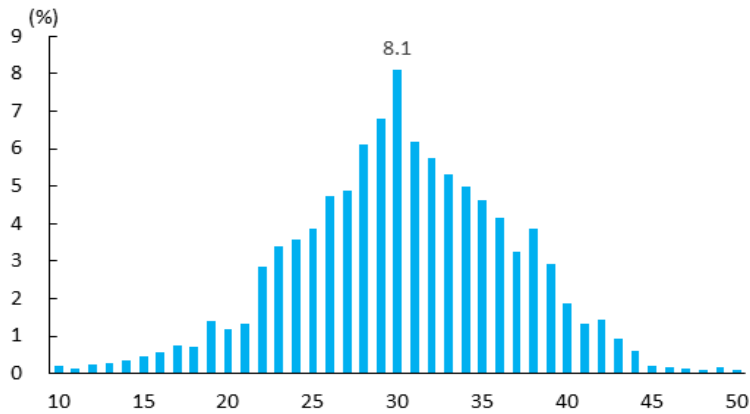
금융 웰빙 항목	평균(표준편차)
1. 나는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는 경우 감당할 수 있다.	2.98(.91)
2. 나는 미래의 재정문제(노후준비, 결혼, 주택 구입, 자녀 교육 등)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대비하고 있다.	3.12(.94)
3. 현재 내 재정 상황으로는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3.12(1.07)
4. 나는 내 금전 관리 방식 덕분에 인생을 즐길 수 있다.	3.09(.87)
5. 나는 평소 경제적인 여유가 없고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다.*	2.85(.99)
6. 나는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저축할 돈이 금방 소진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2.72(.98)
7. 경조사, 생일,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선물을 주는 것이 그달의 내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2.67(.94)
8. 나는 매월 쓰고 남는 돈이 있다.	3.06(.99)
9. 나는 청구서 등 지불해야 할 것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4.11(.95)
10. 내 재정적 상황이 내 삶을 통제한다.*	2.61(.90)
전체	3.03(.64)

주: 질문 끝에 있는 *는 역코딩 항목, 굵은 글씨체는 약식 척도 항목임.

본 연구에서는 이들 10개 항목을 합해 개인의 금융 웰빙 점수를 구하고 이를 정식 금융 웰빙 지수로 부른다. 정식 금융 웰빙 지수는 최소 10에서 최고 50까지의 값으로 분포한다([그림 2]의 히스토그램 참고). 우리나라 성인의 정식 지수의 평균은 30.33으로서 ‘보통’ 수준이다.

미국 CFPB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정식 금융 웰빙 척도를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5개 항목으

로만 구성된 약식 금융 웰빙 척도도 함께 제안했다. <표 2>에서 굵게 표시된 것이 약식 척도를 구성하는 5개 항목이다.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측정한 정식 지수와 약식 지수 사이의 상관계수는 .943(피어슨 상관계수, $p < .000$)으로 매우 높아, 필요에 따라 어떤 척도를 사용하더라도 심각한 오류는 없어 보인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척도에 따라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려고 정식 척도와 약식 척도 모두 분석에 활용한다.



[그림 2] 정식 금융 웰빙 지수의 도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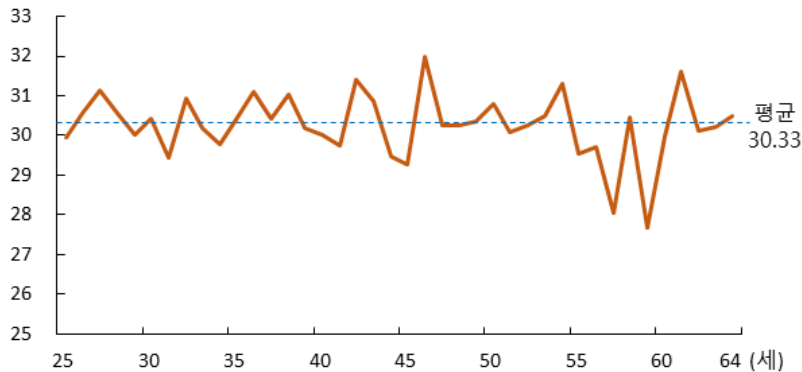
2) 개인 특성별 금융 웰빙 지수의 차이

개인 특성에 따라 정식 금융 웰빙 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일 먼저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평균을 비교한 결과, 남자(30.34)와 여자(30.33)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금융 지식이나 금융 기능에서 남자가 높은 수준에 있는 것과는 달리, 금융 웰빙에서는 성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 동등함은 5개 항목으로 구성된 약식 금융 웰빙 지수에서도 변함없다.

연령별 정식 금융 웰빙 지수를 그리면 [그림 3]과 같다. 연령과 금융 웰빙의 평균 점수 사이에 뚜렷한 관계를 발견하기 힘들다. 다만 50대 후반 응답자들의 경우 금융 웰빙 수준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상태에 따라서는, 기혼자의 금융 웰빙 수준(30.65)이 제일 높다. 미혼자의 점수는 29.85이며, 이혼 상태이거나 사별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8.58로서 가장 낮은 수준의 금융 웰빙 상태에 있다($F=7.311, p=.001$).

거주하고 있는 지역(대도시)에 따라서 정식 금융 웰빙 점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F=5.023, p=.000$). 서울 거주자의 금융 웰빙 점수가 평균 31.07로 가장 높으며, 대전 거주자가 30.81로 그다음이다. 나머지 대도시 거주자들의 금융 웰빙 점수는 전체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거주지 조사에서는 대도시 외에 경기도의 1기와 2기 신도시 지역을 별도로 구분해서 조사했는데, 이들 신도시 지역 거주자까지 포함할 경우 2기 신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금융 웰빙 수준을 보였다(143명, 평균 31.28).



[그림 3] 연령별 정식 금융 웰빙 지수

3. 금융 역량 변수

1) 금융 지식

본 연구에서는 금융 역량이 금융 지식, 금융 기능, 금융 태도, 금융 행위로 구성된다는 선행 연구의 보편적 접근을 따르며(OECD, 2016; Sorgente & Lanz, 2017),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자료에서 이들 4개 하위 영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재단은 성인의 금융 지식을 측정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하는 대신에 선행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문항들 가운데 12개를 추출했다. 예를 들면 <표 3>의 1~3번 문항은 이른바 ‘빅 3’이라고 불리는 데, Lusardi & Mitchell(2005) 이후 지식 측정 연구들 대부분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 문항들도 금융 지식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이다(이를테면 Knoll & Houts, 2012).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음 같은 이유로 1번과 8번 문항을 지식 측정 점수 산출에서 제외한다. 우선 1번 문항은 조사에 사용한 선택지에 ‘110만 원’이 아니라 ‘102만 원’으로 표기하는 오류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답에는 변함이 없다. 이 문항의 취지는 복리의 영향으로 5년 후 계좌 잔액이 110만 원보다 많아지는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인데, 102만 원으로 표기된 탓에 복리 개념을 모르더라도 정답을 쉽게 고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조사대상자의 금융 지식이 과대평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실제로 이 문항의 정답률이 86.1%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같은 문항으로 2020년에 우리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답률 40%보다 2배 이상 높다.

다음으로 8번 문항은 참/거짓을 선택하는 가장 단순한 구조의 문항임에도 난도가 매우 높다. 그 결과 정답률이 27.7%에 그쳤다. 단순 추측에 의한 정답률 50%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금융 지식 문항의 타당도 검사에서도 12개 문항 가운데 가장 낮아, 금융 지식의 측정 결과를 오히려 왜곡할 우려가 있다. 다른 문항들과의 상관관계도 유의미하게 음(-)으로 나타나는 등 이른바 역변별 문제가 있다.

〈표 3〉 금융 지식 측정 문항과 정답률

금융 지식 문항	정답률(%)
1. 저축 계좌에 100만 원이 있고 연 이자율이 2%라고 가정하면, 5년 후 이 계좌에 얼마의 돈이 있을까요? ① 110만 원 이상 ② 정확히 110만 원 ③ 110만 원 미만	86.1
2. 귀하의 저축 계좌 이자율이 연 1%이고, 물가 상승률이 연 2%라고 상상해봅시다. 1년 후에 당 신 계좌에 있는 돈으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① 오늘보다 더 많이 ② 오늘과 똑같이 ③ 오늘보다 더 적게	79.1
3.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응답해 주세요. “만약 1개 회사의 주식을 사면 일반적으로 주식 형 펀드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① 참 ② 거짓	79.5
4. 장기간(10년 또는 20년)을 고려할 때, 아래 보기에 제시된 자산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① 저축 계좌 ② 채권 ③ 주식	55.9
5.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가장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① 저축 계좌 ② 채권 ③ 주식	83.2
6. 돈을 서로 다른 다양한 자산에 분산해 놓으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① 늘어난다. ② 줄어든다. ③ 변함없다.	82.7
7.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응답해 주세요. “만약 당신이 1,000만 원을 주식형 펀드에 투자 한다면 펀드에서 돈을 인출할 때 1,000만 원 미만일 수 있다.” ① 참 ② 거짓	92.4
8.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응답해 주세요. “중신보험에는 저축 기능이 있지만 정기보험에는 없다.” ① 참 ② 거짓	27.7
9.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응답해 주세요. “집값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 ① 참 ② 거짓	86.2
10. 300만 원의 신용카드 빚이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매월 3만 원의 최소 지불액을 상환합니다. 연간 12%(또는 한 달에 1%)의 금리에 새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없다면, 신용카드 빚을 다 갚는 데 몇 년이 걸릴까요? ① 5년 미만 ② 5~10년 사이 ③ 10년~11년 사이 ④ 절대 갚을 수 없으며, 계속 빚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35.8
11. 만약 금리가 오른다면 채권 가격은 대체로 어떻게 될까요? ① 올라갈 것이다. ② 떨어질 것이다. ③ 변동이 없을 것이다. ④ 채권 가격과 금리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44.0
12. 다음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응답해 주세요. “15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30년 만기보다 일반적으로 매월 상환 금액이 많지만,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총 이자 금액은 더 적을 것이다.” ① 참 ② 거짓	73.5

이상의 2개 문항을 제외한 10개 문항의 정답 수를 개인의 금융 지식 점수로 측정한다. 2,500명의 금융 지식 점수에서 최저는 1개(9명)이며, 최고 점수인 만점을 얻은 응답자는 178명이다. 지식 점수의 평균은 7.12개(표준편차 1.82)로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71.23점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지식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해외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성인 남자의 금융 지식이 여자보다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성인에게도 성별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금융 지식을 보유

하고 있어 외국의 발견과 일치한다(10점 만점에 남자 평균 7.28, 여자 평균 6.96, $p < .000$).

2) 금융 기능

금융 기능은 바람직한 금융 의사결정을 실천하는 데 요구되는 역량이다. 합리적인 돈 관리 의사결정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6개 항목을 가지고 개인의 금융 기능을 측정한다(〈표 4〉 참고).

이들 6개 항목을 각 1~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는데, 금융 기능 변수는 이것들의 평균으로 정의한다. 금융 기능 척도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크론바흐 알파 .851). 성인의 금융 기능은 항목에 따라 평균 2.92~3.77을 기록했는데, 과소비하지 않는 방법을 아는 기능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좋은 투자 방법을 분별하는 기능에서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금융 기능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남자 평균 3.23, 여자 평균 3.10, $p < .000$).

〈표 4〉 금융 기능 측정 항목

금융 기능 항목	평균(표준편차)
1. 나는 재무적으로 의도한 바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다.	3.19(.837)
2. 나는 돈과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조언들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3.14(.872)
3. 나는 복잡한 금융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알고 있다.	3.03(.878)
4. 나는 처음 해보는 새로운 금융 의사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	2.94(.924)
5. 나는 좋은 금융 투자 방법을 분별할 수 있다.	2.92(.934)
6. 나는 과소비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다.	3.77(.805)

3) 금융 태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조사 자료에는 개인의 금융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항목 3개가 포함되어 있다(〈표 5〉 참고). 이들 태도 항목을 1~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인 대부분이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돈을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비해서 자신이 정해놓은 금융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쓰는 점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이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지닐 필요도 있어 보인다. 저축 습관 항목의 경우에는 표준편차도 3개 항목 가운데 제일 커, 저축 습관을 지니고 있지 않은 성인이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태도 척도의 신뢰도를 보면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633으로 다른 변수들의 척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척도 속의 항목 수가 적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6보다는 높으므로 수용할 수 있는 신뢰도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개 항목의 평균으로 개인의 금융 태도 변수를 정의한다. 성별로 비교하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바람직한 금융 태도를 지니고 있다(여자 평균 3.99, 남자 평균 3.82, $p < .000$).

〈표 5〉 금융 태도 측정 항목

금융 태도 항목	평균(표준편차)
1.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한 금전적 약속을 지키려고 애쓴다.	4.32(.742)
2. 나는 스스로 정한 금융 목표를 달성하려고 애쓴다.	3.81(.750)
3. 저축은 나에게 습관이다.	3.57(.849)

4) 금융 행위

금융 행위는 3개 항목으로 측정한다. 〈표 6〉의 3개 항목 외에, 개인의 금융 행위를 조사한 항목이 몇 개 더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만 종속 변수인 금융 웰빙과의 내용 중복 문제를 피하려고 금융 행위 척도에서 제외했다. 이를테면 “관리비, 전기세 등 모든 청구서를 납기일 내에 지불했다.” 항목은 금융 웰빙 척도에 포함된 항목 “나는 청구서 등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와 사실상 같은 내용을 묻고 있다. 그러므로 이 항목을 금융 행위 변수로 포함할 경우, 종속 변수의 잔차항과 독립 변수 사이의 공분산이 0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 행위를 측정한 3개 항목의 평균을 개인의 금융 행위 점수로 정의한다. 이들 3개 항목의 크론바흐 알파 계수는 .698로서 척도의 신뢰도가 만족스러운 수준이다. 항목별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은 예산이나 지출 계획 안에서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재무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과 행동 계획을 준비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금융 행위에서는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남자 평균 3.52, 여자 평균 3.55, $p=.351$).

〈표 6〉 금융 행위 측정 항목

금융 행위 항목	평균(표준편차)
1. 나는 돈으로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재무 목표를 세웠다.	3.45(.881)
2. 나는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단계를 설정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준비한다.	3.29(.899)
3. 예산이나 지출 계획 내에서 돈을 썼다.	3.88(.946)

4. 개인 특성 변수

금융 역량에 해당하는 변수들 외에 회귀 분석에 사용할 개인 특성 관련 독립 변수까지 함께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그림 1〉에 있는 사회 맥락 요인은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지만, 사회 구성원 대부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므로 개인의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회귀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개인 특성 변수 가운데 시간 선호는 미래에 대비해서 현재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측정하는

변수이다. 석 달 후에 100만 원을 받는 것과 지금 96만 원을 받는 것을 비교하면, 현재의 금리를 고려할 때 석 달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 즉, 석 달 후의 1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96만 원보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96만 원을 선호하는 사람은 시간 선호율이 높다. 미래보다 현재를 선호하는 사람이다. 회귀 분석을 위해 시간 선호율이 높은 사람을 0, 낮은 사람을 1로 정의한다.

계획 수립 기간은 저축과 소비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고려하는지를 측정할 것으로서, 고려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한다. 긍정적 사고는 “나는 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1~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변수이다. 신중성은 금융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자신만의 조사나 연구를 거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구하고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지를 가지고 측정한다. 오늘 스스로 재무 목표를 세운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를 측정한 것이 자기 확신 변수이며, “경제적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서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를 가지고 공정 기회 변수를 측정한다. 이 외에, 성, 근로 형태, 가구의 월평균 소득, 자가 주택 소유 여부, 자녀의 수를 개인 특성과 관련한 독립 변수로 고려한다.

〈표 7〉 회귀 분석에 사용하는 변수 설명

구분		변수의 정의
금융 웰빙	정식 금융 웰빙 지수(WB_A)	10개 항목의 합(각 항목 5점 척도, 10~50)
	약식 금융 웰빙 지수(WB_S)	5개 항목의 합(각 항목 5점 척도, 5~25)
금융 역량	금융 지식	10개 문항의 정답 수(0~10)
	금융 기능	6개 항목의 평균(5점 척도, 1~5)
	금융 태도	3개 항목의 평균(5점 척도, 1~5)
	금융 행위	3개 항목의 평균(5점 척도, 1~5)
개인 특성	성	여자=0; 남자=1
	근로 형태	비정규직, 임시직, 무직=0; 정규직=1; 자영업자=2; 부동산 금융 소득자=3
	가구 월 소득	300만 원 미만=0; 300~500만 원=1; 500만 원 이상=2
	주택 보유	전세, 월세, 반전세 등=0; 자가=1
	자녀 수	자녀의 수
	시간 선호	현재 선호=0; 미래 선호=1
	계획 수립 기간	단기(1년 이내)=0; 중기(1~5년)=1; 장기(5년 이상)=2
	긍정적 사고	5점 척도, 1~5
	신중성	2개 항목의 평균(5점 척도, 1~5)
	자기 확신	5점 척도, 1~5
	공정 기회	5점 척도, 1~5

IV. 회귀 분석 결과

1. 다중 회귀 분석

〈표 8〉은 최소자승법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형 (1)은 〈표 7〉의 독립 변수를 모두 사용해 금융 웰빙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정한 것이다. 모형 (2)는 모형 (1)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일부 독립 변수를 제외하고 추정한 것이다. 종속 변수로는 금융 웰빙의 정식 지수(WB_F)와 약식 지수(WB_S) 두 개 모두를 적용했다.

〈표 8〉 금융 웰빙 지수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

독립 변수	WB_F		WB_S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상수	2.949 (1.036)***	3.349 (.986)***	2.462 (.647)***	2.668 (.615)***
성	.018 (.251)	-	-.074 (.157)	-
근로 형태	.200 (.194)	-	.106 (.121)	-
가구 월 소득	1.258 (.197)***	1.277 (.195)***	.699 (.123)***	.705 (.121)***
주택 보유	1.385 (.275)***	1.401 (.275)***	.586 (.172)***	.601 (.171)***
자녀 수	-.531 (.147)***	-.528 (.147)***	-.291 (.092)***	-.289 (.091)***
시간 선호	.649 (.240)***	.644 (.239)***	.430 (.150)***	.429 (.149)***
계획 수립 기간	.946 (.190)***	.964 (.189)***	.571 (.119)***	.583 (.118)***
긍정적 사고	2.291 (.152)***	2.315 (.151)***	1.283 (.095)***	1.301 (.094)***
신중성	-.860 (.207)***	-.856 (.207)***	-.597 (.129)***	-.595 (.129)***
자기 확신	.816 (.202)***	.838 (.201)***	.455 (.126)***	.463 (.125)***
공정 기회	.143 (.133)	-	.096 (.083)	-
금융 지식	.153 (.069)**	.140 (.067)**	.048 (.043)	.035 (.042)
금융 기능	1.592 (.249)***	1.638 (.247)***	.546 (.156)***	.569 (.154)***
금융 태도	1.919 (.256)***	1.867 (.248)***	.605 (.160)***	.592 (.155)***
금융 행위	.669 (.231)***	.689 (.230)***	.433 (.144)***	.445 (.144)***
Adj. R ²	.448	.448	.327	.328
F	93.393***	116.598***	56.406***	70.358***

주: 괄호 안은 표준오차, *** $p < .01$, ** $p < .05$, * $p < .1$

종속 변수가 WB_F인 경우의 모형 (1)을 중심으로 결과를 보면, 금융 역량을 구성하는 네 개의 변수 모두 금융 웰빙 향상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개인의 금융 지식 점수가 1점 높아질 때마다 금융 웰빙 점수가 .15점 상승한다. 금융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 기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금융 웰빙 수준이 높아진다. 금융 태도도 개인의 금융 웰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바람직한 금융 태도를 지니는 사람의 금융 웰빙 평균 점수

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게 추정되었다. 금융 행위 역시 금융 웰빙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성과 근로 형태는 금융 웰빙 수준과 관련이 없는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금융 웰빙 수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주택 보유자는 전세, 월세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보다 금융 웰빙 점수가 1.39점 높게 추정되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자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전월세 자금 마련이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상대적으로 덜 하게 되고 금전적 여유가 있는 덕분에 금융 웰빙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외에 현재보다 미래를 선호하며, 소비나 저축 관련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성인,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세운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금융 웰빙 수준이 더 높다.

반면에 자녀 수는 금융 웰빙 점수와 역의 관계를 지닌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와 관련된 생활비 지출이나 양육, 교육, 결혼, 주택 지원 등에 지출이 많아져 금융 웰빙에 방해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출산만 장려하는 정책은 국민의 금융 웰빙 수준을 열악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의미이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한 후에 돈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신중성이 각별한 사람의 금융 웰빙 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재무 상태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보인다. 모형 (2)의 결과도 모형 (1)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추정 계수의 부호와 유의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약식 금융 웰빙 지수를 종속 변수로 사용해 추정한 결과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금융 지식 변수이다. 금융 지식 점수의 계수가 0으로 추정되었다. 정식 지수인지 약식 지수인지에 따라서 금융 지식이 금융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의 존재 여부가 달라진다는 <표 8>의 결과는 금융교육에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금융교육이 학습자에게 단순히 금융 지식이나 금융 개념을 전달하고 익히게 하는 데 머무른다면, 금융 웰빙 향상이라는 궁극의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금융 기능, 금융 태도, 금융 행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실천적 금융교육이 요구된다.

2. 로지스틱 분석

어느 개인이 금융 웰빙 수준의 상위권 또는 하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그 사람의 금융 역량이나 특성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속 변수를 금융 웰빙 수준 상·하위권으로 구분한 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시도한다. 이 목적을 위해 정식 금융 웰빙 지수(FWB_F)의 값이 평균값보다 '일정 수준' 더 높은 응답자를 상위권, 평균값보다 '일정 수준' 더 낮은 응답자를 하위권으로 분류한다. 일정 수준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는데,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차의 .2배와 .5배의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로지스틱 분석에서의 종속 변수는 다음과 같다.

$$WB_F2 = 1, \text{ 만약 응답자의 정식 금융 웰빙 점수 } > \text{ 평균 } + .2 \times (\text{표준편차})$$

$$= 0, \text{ 만약 응답자의 정식 금융 웰빙 점수 } < \text{ 평균 } - .2 \times (\text{표준편차})$$

$$WB_F5 = 1, \text{ 만약 응답자의 정식 금융 웰빙 점수 } > \text{ 평균 } + .5 \times (\text{표준편차})$$

$$= 0, \text{ 만약 응답자의 정식 금융 웰빙 점수 } < \text{ 평균 } - .5 \times (\text{표준편차})$$

금융 웰빙의 상·하위권을 표준편차의 .2배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상위권에 1,095명, 하위권에 1,047명이 속하며, 나머지는 중위권이라 할 수 있다. 상·하위권을 표준편차의 .5배를 기준으로 더 엄격하게 구분하면 상위권과 하위권에 각 772명, 770명이 속한다. 후자의 경우 전체 표본의 약 30%가 상위권, 또 다른 약 30%가 하위권에 해당하며 나머지 40%가 중위권에 속하는 셈이다. 앞의 다중 회귀 분석에서 유의한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을 로지스틱 분석의 독립 변수로는 사용해 추정된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준편차의 .2배를 기준으로 상위권과 하위권을 구분한 경우(WB_F2), Nagelkerke R^2 으로 측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460으로 매우 높다. Hosmer와 Lemeshow 검정으로 판단할 때 유의 확률이 .624로서 모형이 적합하며, 종속 변수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77.0%로 매우 양호하다.

<표 9>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

독립 변수	WB_F2			WB_F5		
	B	p	Exp(B)	B	p	Exp(B)
상수	-11.693	.000	.000	-15.260	.000	.000
가구 월 소득	.603	.000	1.827	.981	.000	2.667
주택 보유	.472	.002	1.604	.673	.001	1.960
자녀 수	-.265	.002	.767	-.387	.001	.679
시간 선호	.138	.300	1.148	.119	.505	1.127
계획 수립 기간	.362	.001	1.436	.498	.001	1.646
긍정적 사고	.935	.000	2.548	1.264	.000	3.539
신중성	-.360	.002	.698	-.358	.024	.669
자기 확산	.317	.006	1.374	.410	.009	1.507
금융 지식	.128	.001	1.137	.145	.005	1.156
금융 기능	.412	.003	1.510	.602	.001	1.825
금융 태도	1.094	.000	2.988	1.346	.000	3.841
금융 행위	.224	.077	1.251	.170	.296	1.185
Nagelkerke R^2		.460			.619	
Hosmer와 Lemeshow p		.624			.588	
분류 정확도(%)		77.0			83.2	

추정 결과, 대부분 변수가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면, 가구 소득이 한 단계 상향될수록(가령 300만 원 미만에서 300~500만 원으로)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1.827배 커진다. 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1.604배 커지고, 저축과 소비에 대한 계획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로 길게 수립하는 사람일수록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1.436배 커진다. 긍정적 사고를 지니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도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면에 자녀가 한 명씩 늘어날수록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767배 작아지며, 신중성이 각별한 사람도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작아진다. 시간에 대한 선호는 금융 웰빙 향상에는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이었지만,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금융 역량이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금융 지식이 1점 상승할 때마다 또는 금융 기능이 한 단위 높아질 때마다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각 1.137배, 1.510배 커진다.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금융 태도이다. 바람직한 금융 태도 점수가 한 단위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이 거의 3배나 크다. 반면에 금융 행위는 10% 수준에서만 유의미한 요인으로 추정되었다.

금융 웰빙의 상위권과 하위권을 평균 \pm 표준편차의 .5배로 보다 엄격하게 구분해 상·하위권을 더 좁히는 경우(WB_F5), Nagelkerke R^2 으로 본 설명력은 .619, 종속 변수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83.2%로서, 앞선 경우보다 더 뛰어나다. Hosmer와 Lemeshow 검정의 유의 확률이 .588로 나타나 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도 개인 특성 요인 가운데 소득과 긍정적 사고가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다. 금융 역량 가운데는 금융 태도가 제일 중요한 기여 요인으로 추정되어 이전 경우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한편 금융 행위는 금융 웰빙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표 9>에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표본을 금융 웰빙 점수의 평균 초과자와 평균 미달자로 단순하게 양분해 중위권을 없앤 채 모형을 추정하면 금융 행위는 다시 유의미한 요인으로 추정된다($p=.023$). 이와 같은 로지스틱 추정 결과를 종합할 때, 바람직한 금융 행위는 금융 웰빙 수준이 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막고 평균 이상이 되는 데 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금융 지식과 금융 행위 모두 금융 웰빙 향상에 도움을 주면서도 금융 웰빙의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차별화된다. 금융 행위는 평균 이상의 금융 웰빙 수준을 달성하는

데 상대적으로 도움 되지만, 금융 지식은 금융 웰빙의 상위권에 속하는 데 상대적으로 도움 된다. 금융 기능과 금융 태도는 금융 웰빙 향상과 상위권에 속할 가능성 모두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 소득은 물론이고, 자가 주택 보유, 긍정적 사고, 재무 목표 달성에 대한 자기 확신, 소비 및 저축의 중장기 계획 수립 같은 개인 특성들도 높은 수준의 금융 웰빙 달성에 도움이 된다.

금융 역량이 금융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로부터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금융교육이 금융 지식이나 금융 개념을 학습하는 단계에 머무른다면 금융 웰빙 향상에 기여하는 데는 제한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금융 지식을 기초로 해서 금융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능과 행위를 실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금융교육이 병행되어야 금융 웰빙 향상이라는 궁극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자본주의 금융 시장에 어울리는 가치관과 금융 태도를 지니도록 이끄는 금융교육도 금융 웰빙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다.

금융 웰빙은 금융교육 분야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주제인 만큼 고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본 연구는 금융 웰빙의 이해를 위한 작은 걸음이다. 금융 웰빙의 개념에 대한 고찰과 측정부터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금융 웰빙 향상의 결과에 대한 분석에 이르기 까지 연구할 가치가 있는 주제가 풍성하다.

개인의 금융 웰빙 수준을 측정하는 일은 이 모든 과제의 해결에 기초가 될 것이다. 개인의 금융 웰빙을 측정하는 연구자들의 접근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접근 방법으로서, 개인의 소득, 유동성, 부채, 신용도 등 각종 재무 정보와 지표를 금융 웰빙의 대리 변수로 간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관적 접근 방법으로서, 자신의 재무 상태나 재무 만족도 등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의 선호나 효용 구조에 따라서, 동일한 재무 상태에 있더라도 금융 웰빙 수준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문제가 있다. 어느 방법이 금융 웰빙을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가지 방법에 의한 금융 웰빙 수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와 일관성 여부에 대한 분석도 의미 있을 것이다.

금융 웰빙을 향상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금융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과 영향의 크기를 규명하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금융 웰빙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생애 주기의 핵심 사건과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 더 나아가 심리학, 사회학, 행동재무학 등의 분야와 연결해서 금융 웰빙을 분석하는 연구 등도 추진할 가치가 있다(Brüggen et al., 2017).

개입과 금융 웰빙 사이의 관계를 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 개인의 금융 웰빙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개입 수단을 개발하고 이를 개인의 의사결정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다양한 개입 수단이 개인의 금융 기능, 태도, 행위와 더 나아가 금융 웰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금융교육과 금융 웰빙 사이의 관계를 다각도로 모색하는 연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구는 개인 금융 웰빙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풍부하게 해줄 뿐 아니라, 금융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잠재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해준다. 더 나아가 금융 소비자들이 건전한 금융 행위를 실천하도록 도움을 주고 금융 웰빙의 향상에 기여하는 금융 서비스를 공급자들이 도입하는 데도 이러한 연구 결과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이다.

본 연구는 펀드투자자의 금융 웰빙과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펀드투자자라고 금융 웰빙에서 특이한 특징을 지닐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연구 결과의 공고함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거나 펀드에 투자하는 집단과 투자하지 않는 집단을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민정, 김은미, 장연주(2021). 가계의 재무관리역량이 재무웰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정책교육 연구, 17(1), 91-116.
- 한진수(2019). 금융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경제교육연구, 26(1), 1-35.
- Atkinson, A. & Messy, F. (2012).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Results of the OECD/International network on financial education (INFE) pilot study.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15. Paris: OECD Publishing.
- Brüggen, E. C., Hogreve, J., Holmlund, M., Kabadayi, S., & Löfgren, M. (2017). Financial well-being: A conceptualization and research agenda.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79, 228-237.
- Bucher-Koenen, T. & Lusardi, A. (2011). Financial literacy and retirement planning in Germany.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10(4), 565-584.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17a). *CFPB financial well-being scale*. Retrieved from https://files.consumerfinance.gov/f/documents/201705_cfpb_financial-well-being-scale-technical-report.pdf.
-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2017b). *Financial well-being in America*. Retrieved from https://files.consumerfinance.gov/f/documents/201709_cfpb_financial-well-being-in-America.pdf.
-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2019). *Financial well-being in Canada: Survey results*. Retrieved from <https://www.financialcapability.gov.au/files/financial-well-being-in-canada-survey-results.pdf>.
- Finucane, M. L., Alhakami, A., Slovic, P., & Johnson, S. M. (2000). The affect heuristic in judgments of risks and benefit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3(1), 1-17.
- Gerrans, P., Speelman, C., & Campitelli, G.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financial wellness and financial wellbe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approach.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5(2), 145-160.
- Joo, S. (2008). Personal financial wellness. In J. J. Xiao, & J. J. Xiao (Eds.),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 New York, NY, US: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21-32.
- Kempson, E., Finney, A., & Poppe, C. (2017). Financial well-being: A conceptual model and preliminary analysis. Consumption Research Norway – SIFO Working Paper.
- Knoll, M. A. & Houts, C. R. (2012). The financial knowledge scale: An application of item response theory to the assessment of financial literacy.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6(3), 381-410.
- Lusardi, A. (2012). Financial literacy and financial decision-making in older adult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of Aging*, 36(2), 25-32.
- Lusardi, A. & Mitchell, O. S. (2005). Financial literacy and planning: Implications for Retirement Wellbeing. Pension Research Council Working Paper.

- Lusardi, A. & Mitchell, O. S. (2011). Financial literacy around the world: An overview.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10(4), 497-508.
- Mende, M. & van Doorn, J. (2015). Coproduction of transformative services as a pathway to improved consumer well-being: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on financial counseling. *Journal of Service Research*, 18(3), 351-368.
- Money Advice Service (2018). *Financial capability in the UK: Results from the 2018 survey of adults*. Retrieved from <https://www.fincap.org.uk/en/insights/financial-capability-in-the-uk—results-from-the-2018-survey>.
- Muir, K., Hamilton, M., Noone, J. H., Marjolin, A., Salignac, F., & Saunders, P. (2017). *Exploring financial wellbeing in the Australian context*. Retrieved from https://www.csi.edu.au/media/Exploring_Financial_Wellbeing_in_the_Australian_Context_Final_Report.pdf.
- OECD (2005).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finance/financial-education/35108560.pdf>.
- OECD (2016). *G20/OECD INFE core competencies framework on financial literacy for adults*.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daf/fin/financial-education/Core-Competencies-Framework-Adults.pdf>.
- OECD (2020). *OECD/INFE 2020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Retrieved from <https://www.oecd.org/financial/education/oecd-infe-2020-international-survey-of-adult-financial-literacy.pdf>.
- Saez, E. (2009). Details matter: The impact of presentation and information on the takeup of financial incentives for retirement saving.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1), 204-228.
- Salignac, F., Hamilton, M., Noone, J., Marjolin, A., & Muir, K. (2020). Conceptualizing financial wellbeing: An ecological life-course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21(5), 1581-1602.
- Sorgente, A. & Lanz, M. (2017). Emerging adults' financial well-being: A scoping review. *Adolescent Research Review*, 2(4), 255-292.
- Thaler, R. H. & Benartzi, S. (2004). Save more tomorrow: Using behavioral economics to increase employee sav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12(1), S164-187.
- Ülkümen, G. & Cheema, A. (2011). Framing goals to influence personal savings: The role of specificity and construal level.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8(6), 958-969.
- Weber, E. U., Blais, A.-R., & Betz, N. E. (2002). A domain-specific risk-attitude scale: Measuring risk perceptions and risk behaviors.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5(4), 263-290.

Abstract

Financial Competence and Financial Well-Being in Korea

Hahn, Jinsoo(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financial education is to ensure individuals to be financially competent to make financial decisions rationally, and thereby to help them have higher levels of financial well-being. However, there are insufficient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and to what extent financial competences contribute to financial well-being.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and estimates the effects of financial competence and personal traits on financial well-being. The average financial well-being score for 2,500 Korean adults is 30.33, which is close to the middle of the possible range of 10-50. No gender gap or age difference is observed, but married people and residents of Seoul have higher average levels. Financial well-being is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financial skills, attitudes, and behavior. By contrast, the coefficient of financial knowledge is estimated to be 0 if the short index of financial well-being i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Those who are financially knowledgeable and have desirable financial attitudes are more likely to be in the upper ranks of the financial well-being score. Individuals with higher household incomes, homeowners, adults with a long-term planning horizon, a positive mindset, and higher levels of self-confidence in achieving financial goals not only tend to have higher average levels of financial well-being but are also more likely to be in the upper ranks. However, the number of childre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financial well-be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financial education that focuses on learning financial knowledge has limitations in achieving the goal of improving financial well-being. Rather, practical financial education is required to improve individuals' financial skills, attitudes, and behaviors.

[Keywords]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competence, Financial education, Logistic analysis